

전 남

“순천만, 가을철 집중 탐방객 분산시켜야”

순천만 지속 가능 생태관광 활성화 국제심포지엄 8경 선정, 계절·장소에 따른 생태프로그램 필요

‘세계 5대습지’중 하나로 손꼽히는 순천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용력을 초과하는 탐방객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순천만 허용할 수 수용력은 하루 9300여 명에 불과하지만 가을철 주말에만 하루 1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순천만을 찾는 등 생태수용력을 초과하고 있다”며 “사전예약제 등 수용력내에서 생태관광이 이뤄지도록 탐방객의 계절적·장소적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산하고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순천만 8경’을 선정해 가장 적합한 시간대를 고려한 ‘일일 경관감상형’ 프로그램과 계절에 따른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순천만에 도입하는 생태관광 시설과 구조물에 생태적 설계기법을 적용하는 등 생태관광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타(무라) ▲순천 생태관광 발전의 환경적 고려(서울대 김성일 교수) 등 논문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 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글로벌 생태관광지로서의 순천만의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과 논의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S자형 수로와 갈대군락, 흑두루미·황퉁어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품은 순천만은 지난 2006년 람사르습지,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1호로 지정됐다.

/송기동기자 song@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목포 신정초등학교(교장 박광남) 학생들이 4일 열린 학예발표회인 ‘산정에술제’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1933년 개교한 목포 신정초교는 27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SNNC, 또 하나의 철강신화를 창조한다

포스코 니켈법인, 준공 2년만에 3만 생산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주)SNNC가 준공 2년만에 연산 3만 생산체제를 갖추고 또 하나의 포스코(POSCO) 철강신화 창조에 나섰다. SNNC는 공장을 준공한지 11개월만인 지난해 10월 한 달간 2302t의 니켈생산에 성공하면서 연산 3만대의 정상 운영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단일 전기로(爐)로는 세계 최대규모(피크파워 94Mw)를 갖춘 가운데 4개월 만에 정상 조업도를 달성, 최단기간(17개월) 공장건설을 완공하는 등 철강업계에서 세계적 진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글로벌 철강기업 포스코와 뉴칼레도니아의 최대 니켈광석 수출회사인

SMSPS는 지난 2007년 합작으로 3억7100만달러를 들여 광양제철소 인근에 SNNC를 설립했다. SNNC가 일본·중국 등 철강사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은 광산을 직접 개발·제련하고 여기서 나온 제품으로 다시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드는 수직 결합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세계 유수의 니켈 제련사들이 일부 지분을 참여한 적은 있지만, 광산을 직접 개발해서 원료인 니켈을 공급받는 사례는 포스코가 처음이다. SNNC는 ‘페로니켈(니켈과 철의 합금) 생산기술의 글로벌 넘버 1 달성’을 선포하고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전사적으로 2012년 비전달성을 위해 ▲생산성 증대 ▲니켈회수율 증대 ▲석탄단위당 줄이기 ▲에비 환원율 증대 ▲전력단위당 줄이기 ▲제품일도 향상 ▲슬래그 고부가가치화 ▲원료품질 향상 등 8대 전략경영기술훈을 개발키로 했다. SNNC는 오는 2012년까지 니켈기준 연산 3만t, 회수율 97.6%, 석탄 및 전력 단위당 환원율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세계 유수의 경쟁사들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 페로니켈 최고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상훈 SNNC 대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10대 안전철칙, 직원들의 의식개혁 등을 통해 페로니켈 생산기술의 글로벌 넘버 1 비전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구례 야생화 ‘押花’ 중국나들이

5~8일 청다오 명가미술관에서 전시회 가저



구례군 야생화 특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압화(押花)가 중국 나들이에 나섰다. 구례군 압화연구회(회장 박봉덕)는 중국 초청으로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칭다오(靑島) 명가미술관에서 열리는 ‘압화 중점작가 국제전’에

참여해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박봉덕·이승욱·이종희·김영아·김경자·김희정·이호영 씨 등 7명이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나라에서는 압화작가 19명이 참여해 작품 100여 점을 출품했다. ‘압화’는 꽃을 비롯한 식물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건조시켜 회화적 느낌을 다양한 형태의 창작을 하는 장르이다. 한편 구례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02년부터 ‘대한민국 압화 대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대만 등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돌아온 백구마을’ 24번째 논배미축제

7일 진도 돈지 백구공원

‘돌아온 백구마을’로 유명한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마을주민들이 24번째 흥취농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가을축제를 열고 있어 화제다. 진도군 돈지 논배미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7일 돈지 백구공원에서 ‘논배미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추수를 마친 들녘에서 마을별 여자 대표선수가 출전해 ‘호박 머리예 이고 달리기’와 남자들이 짚으로 만든 공으로 축구를 하는 ‘짚공차기’ 등이 열린다. /서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hypark@

또 대동 두레 놀이와 소 달구지 타기·굴렁쇠 굴리기·미꾸라지 잡기 등 관광객을 위한 체험행사를 함께 마련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남도문화의 중심지인 진도 민속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는 지난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간 진돗개 ‘백구’가 300여km나 떨어진 옛 주인집으로 돌아와 ‘백구마을’로 널리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hypark@

꽃색 예쁜 우수장미 2계통 선발

도 농기원 품종평가회



꽃색이 예쁘고 상품성이 우수한 장미 2계통이 선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농업박람회장 생명예술관에서 새로 육성한 장미품종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갖고 ‘전남교 D1-65’와 ‘전남 D1-2호’ 등 2계통을 선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장미 재배농가와 종묘(種苗)관련 종사자, 화훼공판장 경매사, 화훼 도매인, 꽃꽂이단체, 대학교수, 관련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교 D1-65’는 분홍색의 스탠다드 계통으로 꽃줄기의 길이가 70cm이며 절화수명이 길고 수량이 많은 중·대형계 품종이다. /송기동기자 song@

또 ‘전남 D1-2호’는 적백색의 꽃이 큰 대형 스탠다드 계통으로 흰가루병에 강하고 절화수명이 긴 특징이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립 종자관리소에 내년 2월 품종보호출원하고 품종등록과 함께 조기에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한마음(적백색) ▲이노센스(백색) ▲탑핑크(분홍색) 등 14종의 장미 신품종을 육성했다. /송기동기자 song@

앵글 속 담양은 어떤 모습일까

9일까지 담빛사진동호회 창립전시회

담양문화원 주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첫 사진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담빛사진동호회(회장 오봉록)는 지난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담양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창립 전시회를 열고 있다.

‘담양, 그 빛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회원 12명이 1년여간 열정을 쏟아 부어 앵글에 담은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작품들은 안개 자욱한 송강정 소나무숲을 비롯해 ‘슬로시티’

창경 삼지내마을 골목길 어린이, 매주작업 등 담양의 자연풍경과 사람들과 고루 담았다. 회원들은 담양문화원이 올해 첫 개최한 사진반(작품전시 최옥수)에서 사진의 세계에 입문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자신만의 작품을 렌즈에 담고 있다. 오봉록 회장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정경 등에 눈길을 돌려 ‘담양예찬’과 ‘생활예술’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복돼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구매
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구매 (192㎡ 58py)
총 분양가 5억 6천 136만
계약금 5613만원 납부
매매가
주인시정상 싸게 구매
문의 062-364-1613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나 임대
노후하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신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주시내권 및 시외시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설보수와 원상복구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중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용소스 소중한 건물을
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중요한
필요드리겠습니다.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다가구주택
• 동구 계림동 대지 100평 건물 224평 1층상가 2~3층 다가구 4억5천만
• 북구 삼각동 대지 62평 건물 111평 3층 다가구 2억2천만
근린시설
• 동구 공동 대지 71평 건물 310평 3억 5천만
전원주택
• 광산구 삼각동 대지 245평 건물 91평 전방중용 투지적합 7천 3백만
• 담양읍 백동리 대지 107평 1층 주택 5천 2백만
근린상가
• 북구 삼각동 대지 122평 건물 335평 매가 5억9천만
내대지
• 광산구 신창동 대지 69평 원룸부지 9천3백만
과수원
• 나주시 부덕동 952평 배나무 식재 지면녹지 4천5백만
이외 상담물건, 판방 대량보유,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마곡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 •
핸 011-620-3960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법 공원사거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255
주역/재개발
영인승용장 010-3626-0920
근린주택
김현승이사 010-6033-0114
아파트/빌라
영인승용장 010-3626-0920
주역/재개발
영인승용장 010-3626-0920
근린주택
김현승이사 010-6033-0114
생충퇴치(8층)기밀빌라
대지107㎡, 2300㎡
감정가 18억9천
최저가 9억4천
전문상담010-7570-7255
금남로 16층(행원)
대지191㎡, 2335㎡
감정가 65억9천
최저가 18억7천
전문상담010-7570-7255
공동(5층)상가건물
대지237㎡, 2102㎡
감정가 10억9천
최저가 3억9천
전문상담010-7570-7255
계림동 (8층)원룸(목욕탕)
대지42㎡, 2398㎡
감정가 35억3천
최저가 15억9천
전문상담010-7570-7255
계림동(원룸)30세대
대지31㎡, 2373㎡
감정가 69억3천
최저가 4억4천
전문상담010-7570-7255
송정동 (원룸)22세대
대지93㎡, 2181㎡
감정가 69억4천
최저가 4억4천
전문상담010-7570-7255
병원,교회,사육,모텔,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255
「부동산경매 전문과과정」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학기(15주)
실전경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직장인,주부,공무원 임직원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